

CEO 동정

KR 청년중역 임명장 수여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7월 31일 조직 발전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계층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각 직급의 일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중역 13명을 선정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국토부장관, 수도권 고속철도 현장 방문

-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체제 도입 강조 -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2일 공사가 활발히 추진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현장(제4공구)을 방문하고, 현장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권 장관은 이날 최성권 수도권본부장으로부터 본 사업의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35℃를 넘나드는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작업구 계단을 이용하여 깊이 24m의 본선터널 공사 현장을 직접 순시하였다. 또한 공사 추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국책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 장관은 특히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내년 초까지는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수도권본부는 본 사업에 내년초 선정되는 제2사업자가 우선 적용되는 점과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광경호 기자)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수서~동탄~평택간 61.1km 고속철도 신선건설
- 총사업비 : 3조 9,017억원(국고 1조 5,607억, 자체 2조 3,410억)
- 사업기간 : 2008~2014년



조직문화 개선리더 『청년중역』 운영

- 일반 직원 13명 선정, 변화와 혁신 주도 -



공단은 경영현안과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계층간·부서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조직내부의 벽을 허물기 위해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 젊고 참신한 일반 직원들로 청년중역 13명을 임명하고, 지난 1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청년중역은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창의혁신 활동을 주도하고, 신규 업무개발, 노사협안 등에 대한 주요 안건을 이사장에게 직접 제안하여 경영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이끌어 가는 '조직문화 개선리더'로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김광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철도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서 공단을 보다 역동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교통편의 제공과 철도기술 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2년 상반기 1,112억원 재무개선 달성

- 자구 노력 통한 채권발행 억제로 부채증가 최소화 -

공단은 금년 상반기 비용절감 및 수입확대 등 자구노력을 통해 상반기 목표액 796억원 보다 40%를 초과한 1,112억원의 재무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지하차도 최적화, 강관 말뚝박기 과다수량 조정 등으로 예산 절감 521억원, 민자역사 정음료, 광명역 등 복합환승시설사업 수익 등 국유철도 재산을 활용한 수익 증대 548억원, 중구철도감리 등 해외사업수익 43억원 등의 수익창출로 전년 동 기간 대비 매출액 영업 이익율이 30%에서 38%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이 661억원에서 91억원으로 86% 감소하는 등 주요 손익지표들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추진 단계별 소요자금, 부채상환 수요예측 등을 통해 자금조달과 집행시기를 최적화하는 등 무비용성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반기 채권발행 목표액 2조 790억원 보다 39%를 줄여 8,090억원의 채권발행을 뒤로 미뤄 136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했다.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년 상반기 금융부채는 '11년 말 14조 665억원에서 14조 4,27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계획 15조 2,572억원보다 5.4% 감소한 것으로 부채증가를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부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 임직원에게 주시시키고, 예산절감, 수익창출 등 부채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항시 강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 건설지연 불가피

- 서울시, 수서역 GB관리계획 심의 때마다 조건 바뀌 3차례 보류 -

공단은 서울시가 지난 5, 6월에 이어 지난 1일 3차례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서역 그린벨트(GB)관리계획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을 '14년말까지 건설할 수 없는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공단은 작년 3월에 수서역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을 신청하여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11.8월) 및 국토부 사전심사(12.1월)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지난 5월과 6월 2차례 보류하였다. 3차 심의 이전인 지난 7월 12일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남구청, 철도공단간 회의를 통해 협의했고, 지난 7월 27일 서울시에서 요구한 5가지 문제에 대해 공단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서울시가 또 다시 지난 8월 1일 심의를 3차례 보류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종합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GB관리계획과 무관한 요구 조건을 매번 바꿔가며 3차례나 심의를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소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정한 사항인데 심의결과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소위원회로 권한을 위임 처리하겠다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로 국책사업인 KTX 수서역 건설을 기한 없이 지체시키고 있다.

공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서역 GB관리계획 수립을 3차례에 걸쳐 보류함에 따라 2015년 수도권고속철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선 성남시 구간에 임시역사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1차심의(5.23)	2차심의(6.20)	서울시공문(7.27)
- 소위원회를 거친 후 본 심의 상정 • 주차장 지하화 • 광역교통대책 수립 마련 • 교통·환경 종합관리방향	- 관련기관간 심도있는 검토 • 교통 개선대책 • 주변 개발계획 • 고속철도 지하화	- 주차장 지하화 - 주차기지 상부 단차없이 조성 - 받고개길 교통개선 대책 - 고지배수로 수방대책 - 승객편의시설 확보

부실 설계사·기술자 삼진아웃제 시행

- 설계사·기술자 평가제 도입으로 부실벌점 부과, 업무 배제 등 -

공단은 철도건설 설계사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에 비해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설계 3회 누적시 설계참여를 배제하는 등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설계사와 기술자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부실벌점 부과 및 3회 누적시 설계참여 배제 ▲시공 중 총사업비 과다증액시 부실벌점 부과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구현을 위한 설계시행사의 동일구간 감리용역 입찰 배제 ▲설계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키 위한 인터페이스 절차 개선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과업범위 중복 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과정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원설계사 참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시 현장조사 시행 ▲설계 감독자 및 설계심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토론회 정례화와 설계 Checklist 주기적 교육 시행 ▲설계계약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공정표 작성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절한 설계기간 부여 ▲분야별 공중 간 인터페이스 반영을 위한 검토항목 List화 등 그간의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의 부실설계가 척척되도록 해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작년 8월 김광재 이사장 부임이후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 및 시공, 고속철도 핵심기술 국산화 등 국제적 수준의 철도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터널 붕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척척 노력을 계속해 왔다.